

조직접착제와 Titanium Mesh를 이용한 수직골 증강술

지 영 덕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아 상실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수복은 치과치료로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식립 부위에 충분한 양의 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한 치주질환이나 외상으로 발치 후 오래기간이 지나게 되면 치조골의 결손 및 퇴축이 일어나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게 되며 다양한 종류의 치조골 증대술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장기간 안정적이고 양호한 예후를 가지기 위해서도 임플란트 주위에 적절한 양과 양질의 골이 필요하다. Nyman등은 치주 치료 시에 결손부에 차폐막을 이용한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을 도입하였고 이를 응용해서 현재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증대술인 골유도재생술 (guided bone regeneration)이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골 결손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골증대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들 방법 중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방법으로는 치조제확대술(Alveolar ridge splitting), 블록 골이식술(Block bone graft)등 이 있다. 골유도재생술은 다른 골증대술에 비해 술식이 간단하여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이 필요할 때 많이 사용된다. 골유도재생술(GBR)은 높이와 폭이 부족한 골 주변으로 차단막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어 남아 있던 골 조직에서 골형성능을 가진 세포의 분화와 이주를 유도하여 골재생을 달성하려는 술식이다. 하지만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은 수직적으로 골결손부가 있는 곳에 골증대술을 시행할 때 그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가적으로 조직접착제를 사용하여 이식재의 형태를 골결손부와 맞게 덩어리지게 형성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할 때 조직접착제만으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3차원적으로 공간을 유지하고 수평적, 수직적으로 골이 결손된 부위에 골형태를 만들기위해 차단막(membrane)의 모양을 원하는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titanium reinforced Gore-tex membrane을 사용하거나 titanium mesh를 이용해서 골증대술을 시행할 수 있다. 확실한 공간유지를 위해서는 조직접착제나 titanium reinforced Gore-tex membrane으로는 불충분하며 titanium mesh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를 확실히 유지하여 결손된 골형태를 회복할 수 있게 조작하여 사용하는것이 골증대술에 좀더 유리하다. 그리하여 수평적, 수직적으로 골결손부가 발생하여 골증대술이 어려운 환자에서 조직접착제와 titanium mesh를 이용한 수직골 증대술을 시행하여 충분한 양의 골을 형성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력 및 경력

-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
-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
- * 대한치과감염학회 회장